

國語教育의 核과 邊緣

李 庸 周

1.

本稿는 教育法과 同 施行令에서 ‘國語科’가 설치된 근거를 찾아 보고 그것이 1955. 8. 1에 제정 공포된 一次 教育課程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으며 또 教育課程 그 자체가 國語教育을 어떻게 設計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國語教育의 核心을 벗어난 주변의 문제들이 어떤 양상으로 教育과정 속에 침투해 있는지에 焦點을 맞추기로 한다.

그리고 이 글은, 국어 교육은 본질적으로 언어 교육이며 그 목표는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이라는 관점⁽¹⁾에서 쓰는 것임을 일러 둔다.

教育法 第93條에

國民學校는 國民生活에 필요한 基礎的인 初等普通教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고 하였고 同 94條에

國民學校教育은 第93條의 目的을 實現하기 爲하여 다음 各號의 目標을 達成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1. 日常生活에서 必要한 國語를 正確하게 理解하며 使用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른다.
2. 個人과 社會와 國家와의 關係를 理解시키어 道義心과 責任感 公德心과 協同精神을 기른다. 特別히 鄉土와 民族의 傳統과 現狀을 正確하게 理解시키어 民族意識을 昂揚하며 獨立自尊의 氣風을 기르는 同時에 國際協助의 精神을 기른다.
3. 日常生活에 나타나는 自然 事物과 現象을 科學的으로 觀察하여 處理하는 能力을 기른다.
4. 日常生活에 必要한 衣食住와 職業等에 對하여 基礎的인 理解와 技能을 기르며, 勤勞力行, 自立自活의 能力을 기른다.
5. 人間生活을 明朗하고 和樂하게 하는 音樂, 美術, 文藝等에 對하여 基礎的인 理解와 技能을 기른다.
6. 保健生活에 對한 理解를 깊게 하며 이에 必要한 習慣을 길러 心身이 調和的으로 發達하도록 한다. (下線 筆者 以下同)

(1) 國語教育을 特정한 집단의 利害와 關聯시켜 特정한 價値觀을 주입하려고 하는 등 언어의 教育· 학습 以外의 目標과 機能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려는 觀點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언어 教育 以外의 特정한 目的의식이 작용하지 않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국어 教育이다.

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教育法施行令에서는 다음과 같이 教科를 설치하였다.

국민 학교의 교과는 도덕·국어·사회·산수·자연·체육·음악·미술·실과로 한다.

중학교 교육에 관해서는 教育法 第100條에

中學校는 國民學校에서 받은 教育의 基礎 위에 中等普通教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고 하였고, 第101條에서는

中學校教育은 第100條의 目的을 實現하기 爲하여 다음 各號의 目標을 達成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1. 國民學校教育의 成果를 더욱 發展 擴充시키어 中堅國民으로서 必要한 品性과 資質을 기른다.
2. 社會에서 必要한 職業에 관한 知識과 技能, 勤勞를 尊重하는 精神과 行動 또는 個性에 맞는 將來의 進路를 決定하는 能力을 기른다.
3. 學校內外에 있어서의 自律的活動을 助長하며 感情을 바르게 하고, 公正한 批判力을 기른다.
4. 身體를 養護鍛鍊하여 體力을 增進시키며 健全한 精神을 기른다.

고 하였으며 教育法施行令 第109條(教科)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과와 설정을 규정하고 있다.

중학교의 교과는 도덕·국어·사회·수학·과학·체육·음악·미술·한문·외국어 및 실업·가정에 관한 교과로 한다.

고등학교 교육에 관하여는 教育法 第104條에

高等學校는 中學校에서 받은 教育의 基礎 위에 高等普通教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고 하였으며 同法 第105條에서는

高等學校의 教育은 第104條의 目的을 實現하기 爲하여 다음 各號의 目標을 達成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1. 中學校教育의 成果를 더욱 發展 擴張시키어 中堅國民으로서 必要한 性品과 技能을 기른다.
2. 國家·社會에 대한 理解와 健全한 批判力을 기른다.
3. 民族의 使命을 自覺하고 體位의 向上을 圖謀하며 個性에 맞는 將來의 進路를 決定케 하며 一般的 教養을 높이고 專門的 技術을 기른다.

고 하였다. 教育法施行令 第112條(教科)에서는

고등학교의 교과는 국민윤리·국어·사회·수학·과학·체육·교편·음악·미술·한문·외국어 및 실업·가정에 관한 교과와 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한다.

와 같이 교과 설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이상 教育法과 教育法 施行令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教科가 설정된 근거를 보았다. 여기서 우리가 注目해야 할 것을 몇 가지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國民・中・高等 各급 학교의 教育을 各各 初等普通教育・中等普通教育・高等普通教育 이라고 하였다. 普通教育이라고 한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初・中・高는 그 水準을 단 계별로 표시한 것이다. 普通教育은 專門教育이 아님을 밝힌 것으로 간주한다.

2. ‘國語科’의 설정은 教育法 第94條 第一項에 근거하여 教育法 施行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그 目標을 “日常生活에서 必要한 國語를 正確하게 理解하며 使用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른다”고 하였다. 중학교는 국민학교에서 받은 教育의 기초 위에,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教育의 기초 위에, 各各 中等과 高等 普通教育을 한다고 하였으니 위와 같은 國語科 教育의 目標은 漸層的으로 그 水準을 높여 가는 것으로 간주된다.

3. 教育法 94條 6項의 ‘文藝’는 ‘音樂’이나 ‘美術’과 함께 藝能教育으로 다루어졌던 것 인 데 ‘音樂’ ‘美術’은 單獨教科로 설정된 데 反하여 ‘文藝’는 單獨教科로 설정되지 못하고 또 그 去就에 관해서 明文化된 바 없다.

2.

1955. 8. 1 一次 教育課程에서는 “國民學校” 國語科의 目標을 强하게 說明하고 있다. 그 重要 一部分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어는 모든 사회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개인의 인격을 분리할 수 없는 일 부분인 동시에 사회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국어의 순화는 사회적인 매개(媒介)를 개선함으로써 인간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여 이해와 협동의 사회로 이끌어 나가는 동시에 개인의 심성과 인격을 도야한다. 여기에 언어 교화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 교육은 내용면에서 사상과 감정을 증시하여 민주적인 생활 지도에 힘써야 하며, 형식면에서 기계적인 정확성을 혼란하여야 한다.

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학습 지도의 目標을 말하고 있다.

국어 학습 지도의 目標은 전기와 같은 기능을 가진 국어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 있으며 말 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의하여 좋은 습관과 태도와 기능을 기르고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이해와 지식과 감상하는 힘을 증대하여 올바른 국어 생활에의 향상을 꾀하는 데 있다.

고 하여 국어 教育 일반의 目標을 말하고

국민학교 국어과 학습 지도는 주로 기본적인 언어 습관, 언어 기술을 올바르게 기르는 체험을 주는 데 있다.(中略)

이러한 국어 教育의 目標을 언어 활동의 범위 안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상 회화를 끝까지 정확하게 듣는다.
2. 남의 이야기를 찬찬히 듣고 판단한다.
3. 표준이 되는 말을 사용한다.
4. 표준이 되는 표기법을 이해한다.
5. 여러 가지 형식의 인사를 한다.

6. 경어를 분간해서 쓴다.
7. 속어와 비어를 피고하 품위 있는 말을 한다.
8. 토의와 회의에 참여한다.
9. 의결과 연구를 발표한다.
10. 라디오, 영화, 연극에 취미를 갖는다.
11. 취미를, 가지고, 도서, 잡지, 신문을 읽는다.
12. 조사와 참고를 위해서 사전 및 참고서를 이용한다.
13. 간단한 논설문을 읽는다.
14. 문학작품 감상에 취미를 갖는다.
15. 간단한 용건을 서신으로 쓴다.
16. 경체(敬體)와 상체(常體)를 구별해 쓴다.
17. 여러 가지 형식의 작문을 쓴다.
18. 듣고 읽는 내용의 요점을 쓴다.
19. 간단한 서식을 쓴다.
20. 간단한 연극을 한다.
21. 신문과 문집을 만든다.
22. 문고(文庫) 및 도서관을 이용할 줄 안다.
23. 글씨를 바르고 고르게 쓴다.
24. 여러 가지 부호를 분별한다.
25. 정확한 어법에 유의한다.
26. 문장 구성의 중요한 부분을 구별한다.

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밝혀 놓았다. 여기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1) 3項에 “표준이 되는 말을 사용한다”가 어디까지를 요구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소위 표준어로 정해진 單語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관계 없지만 發音까지를 포함한 標準語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리한 요구다. 標準發音은 역사상 定해진 일이 없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1933년에 共通語를 정했을 뿐 標準語의 制定은 하지 못한 것이다. 정해지지 않은 標準語를 가르칠 능력과 자격을 가진 國語教師는 한 사람도 없다. 標準語를 가르칠 기반을 마련해 놓지 않고 教育課程의 條文으로만 아무리 그것을 강조해 봐야 그것은 徒勞일 뿐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타성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또 標準語를 강조하는 것까지는 이해되나 표준어 아닌 말을 ‘나쁜말’이라고 몰아부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 14項에 ‘문학작품’이라는 用語가 보인다. 教育法에서 ‘文藝’라고 한 것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현재로서는 엄격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一次 教育課程의 “국민학교 국어과의 영역”에서 教育法 94條의 第6項 “인간 생활을 명랑하고 화락하게 하는 음악, 미술 문예 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技能을 기른다”가 언급이 되고 거기서 또한 ‘문학 감상’이 거론된 것으로 보아 教育法의 ‘文藝’가 教育課程에서 ‘文學’으로 代替된 것이라⁽²⁾ 여겨

(2) 이와 같은 추측이 적중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는지는

진다.

(3) 20項에 “간단한 연극을 한다” 역시 연극에서의 국어 사용에 焦點이 있는 것이겠으나 연극 자체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연극에서의 ‘국어 사용’이라는 언어 활동은 일상의 그것과 다른 것이지만 언어 사용의 일종으로 그와 같은 것을 특별히 학습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으나 교육 목표로 제시하는 條文의 표현으로 “연극을 한다”는 적절하지 않다. 연극에는 ‘언어’가 있으나 그것만은 아니다. 연극은 독립된 하나의 예술이다.

(4) 21項 “신문과 문집을 만든다”는 조문 또한 국어 교육을 誤導해온 요인 중의 하나였다. 한 때 이와 같은 일을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육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온 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다. 신문이나 잡지의 국어로 된 문장 그 자체는 국어 교육과 관련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신문잡지 제작 과정은 국어 교육의 문제가 아니다. 차라리 신문 잡지에 쓰이는 記事나 기타 여러 가지 문장 쓰는 훈련을 한다는 표현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도 전문적인 언어의 용법이지 국민학교에서 교수·학습해야 할 기본적인 국어생활은 아니다.

(5) (22)項 “문고 및 도서관을 이용할 줄 안다” 역시 문제다. 문고나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읽고 싶은 책이나 학습의 참고 문헌을 찾아 읽는 것이 목적이므로 결국 ‘읽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그것은 준비·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국어 교육의 목표로 제시하는 條文의 表現으로는 부적합하다. 이런 것 또한 未熟한 사람들에게 국어 교육의 領域을 오해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³⁾

一次 教育課程의 “국민학교 국어과의 영역(領域)”에서는 국어과 분야를 가장 뚜렷이 나타낸 教育法의 條文이 同法 第94條임을 지적하고 그 제 1항과 제 6항을 들었다. 教育法에서는 國語科 설치를 위한 기반과는 별도로 音樂 美術과 함께 묶어서 情緒 教育을 담당하는 기반으로 제 6항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셋은 각각 독립된 教科로 설치하려 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된다. 그런 ‘文藝’를 ‘국어과’에 편입시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나타난 이해와 기능을 형식면에서 보면

1. 음운(音韻)
2. 문자(文字)
3. 어휘(語彙)
4. 어법(語法)
5. 문학 감상

등 뿐이며, 이것은 다른 여러 항목을 포함하는 내용이 따르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後略)

알 수 없다. 그러나 ‘文藝’라고 한 것과 ‘文學’이라고 한 것은 그 자체로서도 많은 차이가 있으나 國語教育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用語法의 代替인 것이다.

- (3) 기타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대상이 더 있으나 이만 하기로 한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고 알아 듣기 힘든 말을 하고 있다.

이 一次 教育課程에서 特記할 것은 대강 다음과 같다.

(1) 教育法에서 ‘國語’와는 別項으로, ‘音樂’ ‘美術’과 함께 이른바 “인간 생활을 명량하고 화락하게 하는” ‘文藝’를 國語科의 영역에 포함시킨 것이다.

(2) 그런데 그 用語法이 ‘文藝’가 아닌 ‘文學’이라는 데 注目해야 한다. ‘文學 鑑賞’이 ‘文藝’라고 한 것과 그 의미가 크게 다른 것은 없다 하더라도 ‘文學’이라는 用語法은 그 후에 점점 확대 해석되어 文學作品의 감상 이외에 文學研究나 文學史의 문제까지도 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國語科가 綜合 내지 統合 教科의 성격을 띤 것으로 錯覺하는 버릇은 一次教育課程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3) 學習 單元으로서 구성할 수 있는 예라고 하여 세 가지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다른 教科와 달리 國語科의 單元은 교수·학습할 ‘國語’ 그 자체가 기준이 되고 있지 않다. 특이하다고 평한다면 그것은 좋게 말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국어 학습을 위한 單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많았다. 教育課程에서 “생활을 위주로 하는 단원의 예(例)”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 | | |
|---------------------|----------------------|
| 1. 우리 집 | 2. 우리 학교, 우리 마을 |
| 3. 장난감 | 4. 재미있는 놀이 |
| 5. 운동 경기 | 6. 교통 기관 |
| 7. 계절의 변화 | 8. 동물 |
| 9. 소풍 및 수학 여행 | 10. 입학식, 방학, 졸업식 |
| 11. 운동회 | 12. 어린이회 위원회 |
| 13. 학예회 | 14. 라디오 |
| 15. 이야기회, 강연회, 축하회 | 16. 영화, 연극, 그림 연극회 |
| 17. 국가적 경절 및 기념일 | 18. 국가적 행사 |
| 19. 시사 뉴스 | 20. 학습문고 및 기념일 |
| 21. 사회 시설의 견학 | 22. 다른 나라 생활의 모습 |
| 23. 음악, 미술, 문학의 감상 | 24. 우리 거례를 위해 힘쓴 사람들 |
| 25. 인류 문화에 이바기한 사람들 | |

여러 교과에서 독자적으로 설정했어야 할 單元的 이름이 망라된 느낌이다. 이를 기준으로 어떤 教科書가 만들어질 것인가는 不問可知다. 심지어 四季節을 따라 여러 장르의 文章을 하나로 묶어 單元을 구성한 일도 있었다.

비슷한 예는 교육과정에서 두번째로 예시한 單元的 본보기에서도 발견된다. 數字는 교육과정에서 예시한 項目의 순서다.

20. 동요 동시를 쓰자
21. 동화 소설을 쓰자

22. 희곡 그림연극을 쓰자

이와 같은 것은 專門의인 言語의 用法에 속하는 것이다. 때로는 文法的인 破格이 필요하기도 한 것이다. 국어 사용 능력의 기초를 구축해야 할 국민학교에서 正格인 國語使用의 기반을 다지기 전에 이러한 特殊한 言語의 使用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正格인 言語使用法을 안 다음에 表現 效果를 높이기 위하여 破格을 행하는 것이라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제 4차 (現行)教育課程에서는 이와 같은 과거에 대한 反省으로 다음과 같이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동화, 극본의 창작 지도는 특별 활동을 통하여 지도하거나 개별적으로 지도할 수 있으나, 정규 수업시간에 모든 학생에게 지도하지 않도록 한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지도’)
 ‘문학’은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중심으로 하여 평가 한다. (소수 ‘평가’)

다음과 같은 것도 국민학교에서의 국어과의 單元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30. 신문을 만들자

31. 문집을 만들자

이 문제는 이미 앞에서도 거론하였기 더 긴 말은 하지 않겠다.

“국어 순화를 위주로 한 단원의 예”에

2. 표준말

3. 품위 있는 말

이라는 것이 있다. 표준말에 대해서는 앞에서 거론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

‘품위 있는 말’에도 문제가 있다. 언어란 화자의 心理內容을 표현하는 것이다. 敬體를 사용해야 할 때도 있고 常體를 써야 할 때도 있는 것처럼 품위 있는 말을 써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을 때도 있다. 言語의 醇化를 통해서 인간을 만들겠다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나 사람의 마음이 醇化되면 언어의 순화는 세삼스럽게 논의할 필요도 없다. 言語의 生理로 보아 이것이 順理다. 모든 言語形式은 적절히 쓰일 때가 있어서 생긴 것이다. 언어는 적절하게 쓰였느냐의 여부와 효과적으로 쓰였느냐의 여부 그리고 慣習화된 언어의 意味·用法에 맞는 適格한 發話인가의 여부가 있을 뿐, 좋은 말과 나쁜 말이 따로 있다는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 나쁜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라 해서 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더러운 물건도 이름이 있으나 그 이름 자체가 더럽거나 나쁜 말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國語教育이 좋은 말과 나쁜 말이 따로 있다는 잘못된 된 인상을 거의 모든 피교육자에게 刻印해준 것은 잘못된 言語教育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人間外의 事物이나 사람의 感情이나 더러운 것, 나쁜 것 기타 여러가지의 바람직하지 않은 것

이 이 세상에 존재해 있고 우리 생활에서 분리 제거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런 것을 指示하는 言語形式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절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필자의 주장은 평소에 늘 해 오던 것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으나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言語의 本質, 그 存在 理由, 生理에 맞는 극히 自然스러운 것임을 알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國語의 일부 좋은 말만 교육하려고 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일이며 실제로 성공하지 못했다.

教育課程에는 國語科에서는 單元學習이 적당치 않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말이 있다. 그리고 단원 해결에 필요한 언어는 있어도 그 언어 자체는 단원 학습으로 독립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다음과 같다.

한편 단원 학습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참고로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단원 학습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면 그 해결에서 얻은 것은 지식일 것이다. 그러나 국어는 일종의 생활 기술이니까 적당치 않다.
4. 단원 해결에 필요한 언어 활동은 있어도 그 언어 자체는 단원 학습으로서 독립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이나 言明은, 당시의 수준으로서는 도리가 없었겠으나,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一次 教育課程의 條文이나 思考方式이 국어교육의 방향이 빛나게 하는 데 一助를 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말해 보겠다.

(1) 言語 자체도 단원 학습으로서 독립할 수 있다. 韓國의 幼年期로부터 靑少年期에 이르기까지의 平均의 言語發達段階에 관한 연구가 전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각급 학교별로 適正한 學習의 目標나 內容에 근거를 둔 單元을 설정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료만 있다면 언어 자체도 훌륭하게 單元學習으로 독립할 수 있고 올바른 國語教育이라면, 또 이상적으로 꾸며진 教科書라면 당연히 ‘言語’에 焦點을 맞춘 單元이 설정되어야 한다.

(2) 그와 같은 基礎的인 資料가 없어서, 또는 그런 것과는 관계 없이 ‘국어’는 單元 학습으로 적당치 않다고 생각했다면, 無理하게 다른 教科와 발맞추어 單元 아닌 單元, 單元の 기본 성격에서 逸脫된 單元을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合理化할 도리가 없는 기형적인 單元學習을 시도하여 결과적으로 國語教育의 性格을 영똥한 방향으로 돌려 놓는 일은 하지 않았어야 했다.

(3) 單元은 학습 내용에 근거해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학습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單元名이 붙여져야 한다. 科學이나 歷史 심지어는 音樂이나 美術과 같은 것이 焦點인 單元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해결하는 副次的인 效果로 거기서 사용된 言語, 그 單元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언어를 학습시키는 것이 고작이라면 그것은 國語科教育이 아니다. 말로만 重要的 教科라고 했지 실제로는 어느 교과보다 소홀히 다루어졌다고 생각되는 점이 많다.

3.

教育法에는 中學校 教育은 국민 학교 교육 성과를 기초로 더욱 발전 확충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教育法 제94條의 1·6項이 국어 교육에 해당한다는 것에 언급하고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면(面)을 흔히 언어에 관한 면과, 문학에 관한 면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한다. 그러한 생각이 교육법 제94조어 반영되어 언어 교육으로서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고 규정하였고, 문학 교육으로서

인간 생활을 명랑하고 화락하게 하는 문예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른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국어 교육의 형태를 보면, 국어 교육을 주로 문자로써 표현된 문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양 생각하여 왔고, 따라서 문예 중심의 교육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종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가 음성이나 문자로 서로 생각을 주고 받는 모든 생활이 다 국어 교육의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라고 하였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1) 教育法 제 94條 제 1項 국어 교육의 규정을 ‘언어 교육’이라 하고 제 6項 音樂·美術·文藝에 대한 규정에서 音樂·美術을 빼고 文藝만에 언급 그것을 ‘문학 교육’이라고 하였다. 본디 ‘국어교육’을 규정한 것은 제 1項인데 그것을 ‘言語教育’으로 본 것은 의도적이었는지 비의도적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잘못 된 것이라 여겨진다. 또 제 6項의 藝能科에 대한 규정 중 文藝만을 ‘文學教育’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이 또한 문제가 되고도 남는다. 이 부분은 教育法의 條文 內容과 같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國語教育=言語教育+文學教育’이라는 非論理的인 等式으로 국어교육을 규정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國語’는 우리의 경우 韓國語인데 그것은 당연히 ‘言語’를 含意한다. 그래서 國語教育은 그 자체가 당연히 言語教育인데 이와 같은 常識을 도외시하고 言語教育을 國語教育의 下位概念으로 다루는 無分別한 처리를 한 것이다. 물론 착각이었는지 고의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文藝’를 ‘文學’으로 바꾸어 그 분야의 문제가 국어 교육에서 畸型的 肥大症에 걸리게 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2) 과거에는 국어 교육이 文字言語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되었고 따라서 국어 교육이 文藝 중심의 교육으로 흐른 過誤를 시인 반성하고 모든 형태의 音聲言語와 文字言語가 모두 國語教育의 課程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후 지금까지도 音聲言語의 教育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중학교 국어과의 지도 내용” 중 몇 군데를 뽑아 필자의 견해를 말해 볼까 한다. “지도 요소”와 “지도 내용”으로 下位 區分된 것 가운데 “지도내용”의 “언어 문화의 체험과 창조”에

- 자기가 좋아하는 형식으로 시를 짓는다. (시가류)
- 간단한 창작을 할 수 있다.
- 창작에 흥미를 가지고 개성적인 글을 쓴다. (소설류)
- 희곡이나, 시나리오를 써 본다. (희곡 및 극 영화)

와 같은 조항들이 보인다. 이와 같은 것은 그 수준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전문적인 분야의 일이며 普通教育을 표방하는 중학교에서 가르칠 내용은 아니다. 국민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四次教育課程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으며 評價의 경우에도 文學은 鑑賞 중심으로 하도록 주의를 환기 하고 있다.

문학 창작은 문학 창작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 수업 시간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한다(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지도')

문학은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중심으로 하여 평가한다. (소수 '평가')

一次 교육과정에서도, 앞에서 인용한 바 있듯이, 국어 교육이 문예 중심의 『교육으로 흐르는 경향을 경계하고 있다. 중학교는 文人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다. 문학에 대하여 전문적인 교육에 가까운 내용은 다음과 같은 데에도 나타나 있다.

현대 문학(세계 문학)

- 현대 문학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안다.
- 우리 나라 현대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 및 그의 작품에 대하여 연구한다.
- 현대 문학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연구한다.

“현대 문학”이라는 항목에는 네개의 조항이 있는 데 그 중 위의 3개 조항은 문학에 대한 專門인 理解와 研究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大學語文學科의 教育課程이라면 適格이겠지만 중학교 국어과 교육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나친 욕심이며 과중한 부담이다. 이는 中學校에서의 韓國語 教育은 아니다. (一次 教育課程에서도) 文藝中心의 教育을 경계 했으면서 왜 이와 같은 처리를 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언어 과학”이라고 한 항목 중에도 문제되는 것이 없지는 않으나 ‘文學’의 경우보다는 덜 하다.

언어 과학

a 국어의 본질

- 우리말의 발음, 문자, 단어, 문법등의 본질에 대하여 연구한다.

b 국어의 순화, 발전

- 우리 국어의 장점과 단점
-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한다.
- 장차 우리 국어를 어떻게 순화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해한다.

전문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나 이해를 중학생에게 요구할 것은 못된다고 생각한다.

“언어 사용의 기술”이라는 항목 중 “쓰기를 주로 하는 기술”에

편집

- 개인이나 구름, 학급의 문집을 만든다.
- 학급 신문을 편집한다.
- 학교 신문을 편집한다.
- 필요한 기사를 모아 두는 스크랩 책을 만든다.
- 신문, 잡지 등의 편집에 대하여 일반적인 이해를 가지게 한다.

이것이 표제에서 말한 것과 같은 ‘쓰기’에 속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일이 무가치한 일이 아니고 또 그와 같은 經驗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일도 아니라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국어의 ‘쓰기’ 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편집 계획을 세우고 거기 따라 필요한 글을 청탁하여 모으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配置하여 신문이나 문집을 만들어 내는 일은 國語使用 圈外의 技術이다. 특별히 관심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한다. 이런 일이 아니라도 國語 授業에 배당된 時間은 不足하다.

4.

敎育法 제105條에서 高等學校의 敎育 目標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1. 中等學校 敎育의 성과를 더욱 발전 확대시키어, 中견 國民으로서 필요한 品성과 기능을 기른다.
2. 國家 社會에 대한 이해와 進進한 비판력을 기른다.
3. 民族의 사명을 자각하고 階위의 향을 도모하며 개성에 맞는 階의 進路를 결정하게 하며, 一般적 交양을 높이고 專門적 技術을 기른다.

敎育課程에서는, 이와 같은 高等學校 敎育의 一般 目標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高等學校 國語과 학습의 目標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인 요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개인적인 언어 생활의 기능을 쌓는 것이어야 하며,
중견 국민으로서의 교양을 갖추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인 요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함은 민주 국가의 공인으로서의 언어 생활을 훌륭하게 할 수 있게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에 개인적인 언어 생활의 기능을 쌓게 한다는 것은 졸업 후에 각각 다른 직업 생활을 가지게 될 학생들에게 그들이 종사할 직업에 따르는 특수한 언어 기술을 체득하게 함을 말하는 것이다.……

끝으로 중견 국민으로서의 교양이라 함은 언어 생활에 관한 교양을 말하는 것으로 이른 언어 사용에 관한 면과, 문학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문학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한다는 것은 그것이 특히 高等學校 國語과 학습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해설을 들어 보면 그럴 듯하지만 목표로 제시된 조문만 가지고는 얼른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특히 첫째와 둘째는 언어 교육의 목표라기보다는 社會科 교육의 목표와 같이 느껴진다. 文學의 바른 이해와 감상이 고등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대목이 있거니와 이에 대하여는 原則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고등학교 학생의 언어 생활”이라는 題下の “쓰기”의 제 3項 中에

창작…시가, 수필, 소설, 설화, 희곡 등.

과 같은 조문이 있다. 그리고 “쓰기의 주요한 경험” 중에

9. 창작을 한다.

10. 신문, 교지를 편집한다.

고 되어 있다. 국민학교나 중학교에서도 비슷한 조문이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고등학생에게는 좀더 쉽게 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른다. 또 教育法에도 “전문적 기술을 기른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人文系 고등학교는 完成 教育 기관이 아니며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創作과 같은 특수 전문적인 기술을 모든 학생에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藝術高等學校의 文藝創作科라면 이러한 것이 교육의 목표나 내용이 된다 해도 놀랄 것은 없다. 그러나 기타의 實業學校나 人文高等學校에서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 “고등학교 국어(一) 지도 내용” 중 쓰기에도

6. 시, 수필, 소설 등 여러 가지 형식의 창작을 할 수 있다. 창작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창작의 욕을 북돋아 주어, 그 소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고 하였다. 이것이 일반 고등학교를 겨냥한 것이라면 대단한 착각이다. 現行(四次) 教育課程에서 初·中·高 모두 文學장르의 文章을 정규 국어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쓰게 하지 말 것과 評價에서도 文學은 作品의 理解와 鑑賞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注意를 喚起하고 있는 것과 좋은 對照다. 참고로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지도 및 평가 상의 유의점” 해당 부분을 인용해 둔다.

소설이나 희곡의 창작은 문학 창작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 수업 시간에는 지도하지 않도록 한다. (지도 ‘마’ 項)

문학은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평가 ‘다’ 項)

이와 유사한 문제는 語學에서도 발견된다. 몇 가지 例를 보인다.

○ 중요한 고전에 대한……2학년에서는 국어학사(國語學史), 3학년에는……(“국어 一, 지도 내용”의 “4고전 학습” 前文)

- 국어학사를 다루어 문자 언어의 변천을 이해한다. (소수 ‘日’)
- 어원(語源)을 조사한다. (“국어 一, 지도 내용” “5 국어 문제”)

“국어학사”는 文脈으로 보아서 ‘國語史’와의 구별을 하지 못한 데서 온 語謬가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고등학교에서의 國語學史란 당치도 않다. 國語史라 해도 극히 초보적이고 단편적인 것만이 다루어질 것이다.

語源 또한 무리한 요구다. 전문가들도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語源이다. 정확한 것이 교수·학습될지도 의문이고 또 그것이 고등학교에서 다루어질 것인가 의심스럽다.

5.

거듭 말하지만 우리의 국어 교육은 언어인 韓國語의 교육이다. 그것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표현·전달의 도구인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은 韓國語의 意味·用法를 알고 그것을 實用하는 데 관한 것이다. 어떤 事物을 指示하기 위하여 그리고 어떤 意味를 표현하기 위하여 어떤 形式이 선택 사용되어야 하는가를 알고 그렇게 實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국어 교육의 목표다. 그러기 위하여 국어 교육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풍부하고 효율적인 國語 使用을 經驗하게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국어 사용을 矯正하며 새로운 표현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計劃과 교수를 충실히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찰한 一次 教育課程에서만 해도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 보였다.⁽⁴⁾ 그 대표적인 것이 言(國)語學·文學과의 關係였으며 그 다음이 언어의 使用과 관련된 신문이나 문집의 편집과 같은 作業과의 關係 기타 등등이었다. 언어학적인 지식은 국어 사용의 規範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初·中·高等學校에서의 국어 교육의 목표나 내용 그 자체는 아니다. 그것은 大學 語文系列에서의 專門教育의 目標이며 內容이다. 文學의 경우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文學作品은 言語作品이기 때문에 文學의 言語를 학습시키기 위한 國語教材로 다루어지고 그 언어 사용법이 국어 교육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文學作品’이라거나 ‘藝術作品’이기 때문에 국어 교육과의 인연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 文學의 研究論文이나 文學史와 같은 文章 또한 言語作品이기 때문에 국어 교재로 선택될 수 있으나 그것은 指示的·傳達的인 언어의 用法, 論理的인 文章을 가르치기 위한 教材가 될 것이다. 文學의 非言語的인 專門知識은 文學作品이나 文學 研究論文 등의 文章을 學習하기 위한 기반 내지 참고가 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교육의 核心的인 目標나 內容 領域은 아니다. 一次 教育課程에서의 失策은 계속 增大되어 왔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國語教育의 핵심인 ‘國語’ 學習의 段階別 目標나 內容이 하

(4) 그 후 改定된 教育課程에서는 이와 같은 혼란이 더욱 확산 심화된 것으로 생각한다.

나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도 마찬가지다. 이는 국어 교육의 기반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증거다.⁽⁵⁾

參 考 文 獻

1. 教育法과 同施行令
2. 一·四次 教育課程

Le Noyau et les Bornes de l'Enseignement du Coréen en Milieu Scholaire

Lee, Yong Joo

Résumé

Selon la loi sur l'enseignement, l'enseignement du coréen diffère de l'enseignement littéraire. Pourtant, des règlements relatifs à l'application de la loi et les instructions officielles confondent ces deux domaines distincts en définissant les objectifs et champs de l'enseignement du coréen en tant que matière scolaire: même si ils sont étroitement liés, il ne faut pas dépasser la frontière d'art. Il en résulte que les connaissances et les problèmes de recherches dans les deux domaines distincts se mêlent dans le cadre de l'enseignement du coréen. L'enseignement littéraire élargit son terrain jusqu'à ce qu'il trouble (ou empêche) le fonctionnement normal dû de celui du coréen. Il est évident que la distinction nette entre ces deux domaines est le premier pas pour l'enseignement du coréen bon et dû. C'est le moment que l'on se tire de confusion comme quoi les études et enseignement littéraires constituent l'enseignement du coréen dans lequel des textes littéraires ne sont qu'une partie de matières proposées.